

일본, 북한 꺾고 U-20 여자 아시안컵 제패...통산 7번째 우승

등록 2026.04.19 09:07:59



[서울=뉴시스] 일본 20세 이하(U-20) 여자 축구대표팀, 북한 꺾고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U-20 여자 아시안컵 우승. (사진=AFC 여자축구 SNS 캡처) 2026.04.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일본 20세 이하(U-20) 여자 축구대표팀이 북한을 꺾고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U-20 여자 아시안컵 정상에 올랐다.

일본은 지난 18일(한국 시간) 태국 빠툼타니의 탐마삿 경기장에서 열린 북한과의 대회 결승전에서 후반 11분 사노 모모카가 터뜨린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일본은 2019년 대회 이후 7년 만의 우승이자 통산 7번째 U-20 여자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직전 2024년 대회 결승전에서 북한에 1-2로 패배하며 준우승에 그쳤던 일본이 2년 만에 설욕에 성공하면서 해당 대회 최다 우

승팀의 자존심을 지켰다.

일본 다음으로는 한국(2004년·2013년), 북한(2007년·2024년)이 뒤따르고 있다.

반면 북한은 대회 2연패에 도전했지만 선제 실점을 뚫지 못하고 패배했다.

볼 점유율 61.3% 대 38.7%, 슈팅 17개 대 7개 등 주요 수치에서 우위를 점할 만큼 일본을 압도했지만 결정력 부족에 발목을 잡혔다.



MATCH REPORT



[서울=뉴시스] 일본 20세 이하(U-20) 여자 축구대표팀, 북한 꺾고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U-20 여자 아시안컵 우승. (사진=AFC 홈페이지 캡처) 2026.04.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이 공세를 몰아쳤다. 전반 12분 소류경이 공중볼 경합 이후 흘러나온 볼을 슈팅했으나 선방에 막혔다.

전반 18분 코너킥 이후 나온 강류미의 발리슛은 하늘로 높게 뚫고, 전반 29분 소류경의 슈팅은 골키퍼 정면에서 멈췄다.

일본은 라인을 내리고 수비에 집중하며 북한 공세에 맞섰다.

하프타임 이후 일본이 균형을 깬다. 후반 11분 후쿠시마 노아의 프리킥이 날카롭게 연결됐고, 사노가 다이빙 헤더로 득점에 성공했다.

일격을 맞은 북한은 호경과 리수정 등을 교체 투입하며 고삐를 당겼지만 득점에 실패한 채 그대로 준우승에 그쳤다.



[서울=뉴시스] 한국과 북한의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20세 이하(U-20) 여자 아시안컵 조별리그 최종전 경기 모습.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한편 박윤경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 15일 북한과의 준결승에서 0-3으로 패배하고 탈락했다.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한국은 이번 대회 상위 4팀에 주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다.

U-20 여자 월드컵은 오는 9월 폴란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아시아에선 일본, 북한, 한국, 중국이 출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